

서남대를 '전북대 남원 캠퍼스' 로? ...해법 찾기 '속도'

남원시, 전북대 캠퍼스 설치·남원발전연구원 설립 공동협력 협약 '시·시의회-전북대-정치권' 협약사항 이행 방안 등 향후 거취 논의

2018년 2월 최종 폐교 결정 뒤 지역 내 '아픈 손가락'으로 인식돼 온 남원 서남대의 활용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전망이다.

남원시는 최근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갖고 폐교된 서남대의 향후 거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대, 남원시, 남원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이 지역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중심의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상호협력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용호 국회의원,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등

이 뜻을 같이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해 전북대 남원캠퍼스를 설치하고 대학의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자 추진 중인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원(가칭)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실행방안 마련이다.

특히 전북대가 최근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에 선정된 만큼 전북대 남원캠퍼스와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관련 협약은 RIS사업 연계 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협약 사항에는 지역 혁신사업인 도심 항공교통(UAM), 드론, 항공 등 미래 수송기기 분

야의 연구개발(R&D) 기반 마련과 생태계 구축에 대한 상호협력 사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생명 기반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및 스마트팩토리 등 스마트 농업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실행방안 기반의 행정절차 수반 등에 관한 부분도 담겨졌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전북대, 지역 정치권은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기관 전담조직 및 인력배치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서남대 살리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민의 오랜 염원인 서남대를 새롭게 전북대 남원캠퍼스로 유지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서남대 해결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자리가 된 만큼 반드시 지역소멸을 막고 남원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지난 30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북대학교·남원시·남원시의회·지역 정치권 등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왼쪽부터 태동원 국민의힘 임순남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밤이면 더 아름다운 '정음천 분수' 정음시가 정음천 분수 야간 명소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정음시는 정음천과 정음역을 연계하는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음천 분수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다. '정음천 분수 야간 명소화 사업'은 오래되고 낮은 분수의 단순 노출을 다기능 노출로 교체하고,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분수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분수 가동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고창군, 군민·기업 불편 규제 개선

매월 25일 규제혁신의 날 운영... 신고 상시창구 운영

고창군이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기업규제 등 개선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팀에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창구를 운영하며 군민의 불편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군 홈페이지 원클릭 인포존을 설치하여 쉽

고 빠르게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군은 매월 25일 규제혁신의 날을 운영하고 월 1회 부서별 군정 현안 중심의 규제사항을 발굴,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방규제혁신TF팀을 통해 검토,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업(생업) 경

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도 진행한다.

기업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살림살이에 관련된 규제나 제안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이 직접 발굴, 제안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보고 느낀 불편규제들을 다양하게 발굴, 개선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농산물 테마별 직거래 장터 운영

쌀·천일염 등 10월까지 연중 운영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테마가 있는 사계절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고창군은 다양한 축제·행사기간에 문화관광자원, 특화 먹거리와 연계한 장터로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고창모양성제까지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1일부터 3일간 석정온천지구 일대에서 첫 선을 보였다. 지역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

고 가공하는 농가와 단체가 참여해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인 쌀, 고구마, 복분자, 천일염을 비롯해 수박, 멜론, 블루베리 등 제철과일과 공예품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장터 한쪽에서는 떡메치기 행사를 통한 즉석에서 만든 인절미떡 무료 시식행사를 펼쳐 장터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홍정목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세계유산도시 방문의 해를 맞아 개장하는 직거래장터를 통해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한우육종협동조합, 사골곰탕 정기 기부

공유냉장고에 매월 400인분

정읍한우육종협동조합이 행복 나눔 공유냉장고에 한우 사골곰탕 정기기부를 약속했다.

정읍한우는 수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공유냉장고에 매월 400인분(연 3840만 원 상당)의 사골곰탕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읍한우 직원들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사골로 정성스럽게 끓여 수성동에 전달하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소분으로 작업해 공유냉장고에 보관한다.

이렇게 준비한 사골곰탕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이웃의 든든한 한 끼가 된다.

박승술 정읍한우육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읍한우는 정읍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도유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시 돌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의회, 세입·세출 결산 감사 위원 위촉

정읍시의회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선임된 결산 감사 위원은 박익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세무사, 전직 의원 등으로 결산 감사는 오는 27일부터 5월16일까지 진행된다.




위원들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익 대표위원은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검증해 시민의 헬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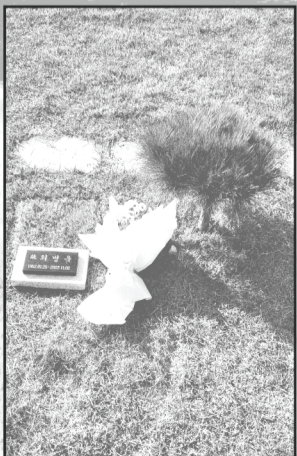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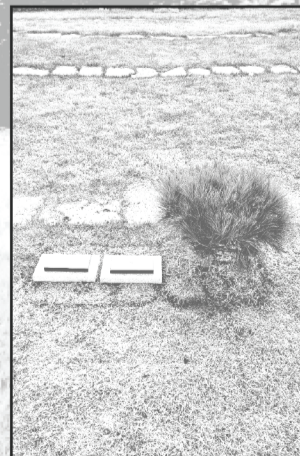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